



다시 읽는 칼빈의 설교 9

주신 자와 취하신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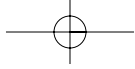
(욥 1:20~22)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인내는 위대한 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내’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이들이 매우 드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과 우리가 것처럼 오랫동안 붙잡아오는 이 덕을 가지는 일을 약하게 평가했다고 말입니다.

인내는 환난 중 우리 믿음을 온전히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이처럼 냉담한 것을 보시고, 사람들 앞에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파쇄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를 통하지 않고는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확신하고 즐거워하며 그 속에서 지족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아울러 사단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과 싸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이 세상보다 더 높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거나, 육체를 감안할 때 우리의 조건이 비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분명히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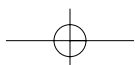
자, 이 대목은 성경 중에서 ‘인내’ 라는 말이 함축하는 내용들을 보여 주기에 가장 탁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이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 인내할 때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틀림없이 배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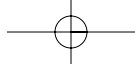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우리는 보통, 사람이 참된 인내를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참을성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참고 버텨 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슬픔을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만일 어떤 불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그 불행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인내는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들려진 거울을 보는 것보다 더 좋고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옳은 참으로 많은 불행한 기별을 듣고 기함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그는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인내하는 사람들이 환난을 잘 견뎌 낸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 아파하고 고뇌를 느끼고 있다는 것도 봅니다. 만일 우리가 나무토막이나 돌과 같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덕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아픔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온 세상을 비웃고 조롱하는 미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덤 언저리에 있습니다. 지기의 불행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덕스럽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보스러움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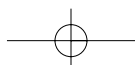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짐승들은 때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짐승들을 밍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인내' 라는 말을 사람들이 마취당하여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또 슬픔을 갖지 않거나, 어떤 환난을 겪을 때 마음에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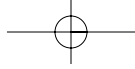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슬픔과 고뇌 느끼도록 창조된 인간

오히려 자신들을 제어하고 통제하여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고뇌에 사로잡혀 모든 일을 포기해야 하는 지점에서조차 자신을 지킬 때,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같이 동조할 수 있고, 여기서 욥이 하듯이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롭다는 결론을 내려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들의 정욕과 맞서 싸울 때, 인내의 덕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고 말씀하는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모양은 동방의 풍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에는 없는 의식들이 다른 지역에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당시 크게 분별 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 슬픔의 표시로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이 그처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길게 하는 관습을 가졌던 그 나라에서는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반면에 머리털을 밀고 지내는 관습이 있는 나라에서는 슬플 때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기 욥이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것은 자신에





게 닥친 슬픔을 표시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욥이 취하는 행동들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위선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큰 슬픔에 빠져 있음을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게 하거나, 마음의 조소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면을 쓰는 일이 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위선의 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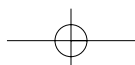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욕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것은 고뇌와 한없는 마음의 고통을 나타낸 것이며, 땅에 엎드린 것은 또 다른 국면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기서 정죄 받을 만한 이른바 자기 슬픔을 마음껏 토해 내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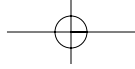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지나치게 너무 많이 드러내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자신들을 제어하고 교정하기는 하지만, 한계를 넘어서곤 합니다.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한계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절제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지나치게 쾌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글픔이나 비애가 기쁨보다도 훨씬 더 사람을 멀리까지 휘몰아 가는 더 거센 정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경을 보낼 때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지나치게 흘려버릴 소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은 사실보다 더 슬퍼지고 싶어하는 것같이 보입니다(자신의 흉한 몰골을 보는 사람은 스스로 큰 질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을 때, 그는 자신을 더 자극하여 슬픔을 가중시키길 원하였다고 말할 만합니다. 또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를 이러한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비난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이 거룩한 사람의 슬픔이 어쩌나 크고 엄청나던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으며, 자기의 마음 밑바닥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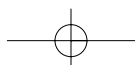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지 극심한 고뇌를 겪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자기 옷을 찢음으로써 일반적인 관례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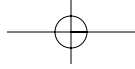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내가 왜 환난을 당하는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슬픔에 삼키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불행을 보내실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물리쳐 버리는 보편적인 방식은 매우 나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방면에서 취해 왔던 방식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인내하길 원할 때, 자기들의 참화에 대한 모든 생각을 쫓아 버리고, 그 생각들을 멀리 밀어버리며, 그것들에게서 달아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져서 아무것도 모르거나 분별할 수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 멍한 상태나 졸음이 오는 것과 같은 상태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머리를 내려쳐서 실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비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며, 바른 방식대로 행하려고 더 조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기억에 남겨두는 것이 말할 것도 없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허망함에 들뜨거나 우리처럼 주재님께 굴지 않고, 당연히 우리를 그처럼 자애롭게 대하시는, 말하자면 그 가슴에 우리를 안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심을 알 때, 우리는 더 멀리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자는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참된 방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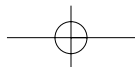
겸손은 회개의 표증, 환난은 우리를 겸손케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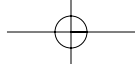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을 보내실 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공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 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 지 시험해 보고 우리의 조건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때 신자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쩌서 내가 환난을 받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털을 밀면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러한 방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지나친 분으로 치달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디다. 오히려 욥에게 떨어진 환난은 그를 겸손케 하였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회개의 표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전염병을 보내실 때 그들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어째서 그랬습니까? 그것은 불행한 슬픔을 더 격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10에서 그러한 것에는 세상을 따라하는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우리도 거기에서 피해 달아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말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가련한 죄인임을 알고 심판대 앞에 나왔을 때, 자기들이 정죄받고 마땅히 징벌을 당해야 함을 보여 줄 때 나타내는 슬픔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크게 드러낼 어떠한 근거도 없고, 자기 입을 막아야 하며, 자기는 이미 무덤에 장사되었어야 할 사람임을 확인하고 있고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나 같습니다. “나는 땅이 나를 지탱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마땅히 땅 속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낫은 데 내버려 두사, 사람들의 발에 밟히도록 하셔야 마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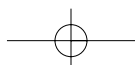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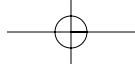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몸은 땅에 엎드렸으나 마음은 하늘을 우러러 보아

바로 욥이 그 행동을 통해서 뜻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겸손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좇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것입니다. 제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환난 없이는 인내도 없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픔을 당하고 자기들의 고통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인내의 덕을 멈추지 않고 자기들의 정욕과 맞싸워 하나님을 욱하지 않아야 하며, 자기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소망을 차 버리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지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라는 말은 ‘몸을 눕힌다’ 또는 ‘엎드린다’는 뜻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하나님께 충성을 드린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있으면서, 계속 분을 내고, 가능하다면 구름 위로 올라가 하나님과 싸워 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자기 심술에 사로잡혀 있으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그런 잠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지존하신 위엄 앞에 자신을 낮추기 위해 하나님을 우러러보려고 땅바닥에 엎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을 체험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 전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실 때 사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마땅히 그분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가 위대한 선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너무 더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다스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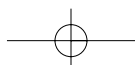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자기 의무를 게을리 하는 신하가 있으면, 임금의 그 사람을 잡아 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생각지 않고 마땅한 바대로 열심히 나오지 않음을 보시고, 우리를 호출하시고 소환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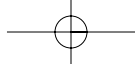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욥은 그 때, 환난의 목적과 참된 용도를 알고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께서 벗기를 원하신다면 벗겠나이다”

우리는 이제 그 말씀, 욥이 사람의 조건을 인식했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욥이 ‘그리로’ 라고 말할 때, 자기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인 땅의 태에서 나왔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고 반만 말합니다. 슬픔에 겨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말을 다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원만으로 충분히 명백합니다. 곧 욥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합니다. “자, 나는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태에서 나온 그대로 말이다.” 이 문구를 이중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로 보편적인 진술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신으로 나온 사람들, 그들이 돌아갈 때도 역시 적신입니다. 자기들의 부와 영예를 갖고 가거나,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썩기 위해서 갑니다. 땅이 그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풀어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욥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었다.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요케 하셔서 큰 재산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큰 가족을 이루게 하셨다. 또 많은 자녀들도 두게 하셨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들과 축복들을 통해서 나를 크게 존귀케 하셨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온전히 발가벗기를 원하신다. 그가 이 모든 것들로 나를 부요케 하시더니, 나로 하여금 처음 상태로 돌아가 무덤에 갈 준비





를 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내게서 취해 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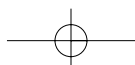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이 문장은 자세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욕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완전히 적신이 될 결심을 함으로써 그 인내를 그렇게 잘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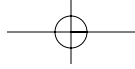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분명히 사람들은 헛되이 저항합니다. 이빨을 갈지만, 결국에는 발가벗긴 채 무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이교도들마저 무덤만은 이 사람들의 왜소함을 보여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우리가 탐욕의 구렁을 갖고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모으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부를 누리면서, 포도원과 과수원과 여러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케 하시려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 밑 여섯 자 아래에 묻혀지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듯이, 죽음은 우리의 본질이 무엇임을 보여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필연성을 피해 보려 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묘를 세우고, 개선나팔이 울리는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조건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셔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좋은 것들과 풍부로 옷 입고 있을 때 탈취당하는 고통을 참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발가벗긴 채 산다 해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조건에서 무덤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내하는 자임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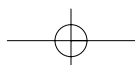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음이 이 대목에서 시사하려는 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불만족스럽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환난의 압박을 받으면서 아무 도움도 받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자신의 원천을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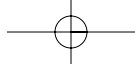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증험하실 때 자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성적인 돌보심을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한, 우리를 먹이고 싶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울러 이것이 우리 자신 밖에서 왔는 것을 언제나 인정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마치 우리 자신의 권리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굉장히 너그러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며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매일 와서 포도주와 떡을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마땅히 당신에게 그러한 일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주려 합니다.”

나는 적신으로 온 가난한 자, 나를 도우소서

그런 경우에 내가 날마다 받을 것을 한꺼번에 달라고 하거나 너그러운 그가 내게 주는 그것으로 소득을 올리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내 얼굴에다 어떤 사람이 침을 뱉어도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을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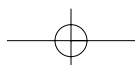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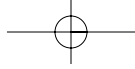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관용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 때 그에게 달려나가 이렇게 아뢰시다. “제가 어디서 나왔나이까? 저의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나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제가 처해 있는 이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무한한 은총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괴롭게 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모든 것을 기꺼이 참아내야 마땅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욥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라고 말하는 내용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좋은 것을 놓으실 때, 우리는 그것의 소유권은 마땅히 우리의 것이며, 우리의 부는 우리에게 귀속되어 있어서 무덤까지 우리와 함께 갈 것이고, 결코 그것들을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높이시기 위해, 주셨던 좋은 것들을 거두어가실 뜻을 가지셨다면, 당장 그 모든 것을 박탈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간에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을 것임을 압시다.

그밖에도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놓으신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을 취하여 가신다 해도 하등 잘못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요케 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권을 갖지 않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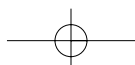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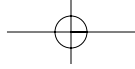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려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은 주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라는 말은, 모든 권세와 주권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만큼 각각 소유하지만,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의 주인과 상전은 하나님이십니다. 욕은 이 사실을 인정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일의 정당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에 자신을 맞추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가 금방 우리에게서 취하여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큰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평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해야겠습니까? 최근에 나는 배은망덕에 대해서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선을 베풀어 우리에게 한동안 너그럽게 하시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낙담시켜서는 안 될 것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진술입니다. 그러나 그 진술을 이해하는 사람은 불과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좋은 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다가, 원하시면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부터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라는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고전7:30) 이 세상의 형적은 자나가 버리며, 모든 것이 사라지므로 우리는 소유하되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소유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소유에 얽매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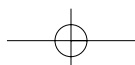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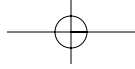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또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딤후6: 17)라고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옹처럼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취하여 가신다면 주님은 주님의 권리를 행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셔서 주셨사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을 취하여 가셨나이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이 대목의 요점이 있습니다. 곧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조건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재산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할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신다든지, 그것을 다스릴 어떤 상전권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에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놓기를 기뻐하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언제라도 도로 취하실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심은 도로 찾을 수도 있다는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거나, 한달이나 어느 기간 동안,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누리게 하셨을 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으시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제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렇게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당신이 기뻐하시면 당신의 것을 우리로부터 가져가실 권한이 있나이다.” 만일 죽을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면, 훨씬 더 많은 통제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스릴 마땅한 권한이 있으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켜야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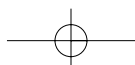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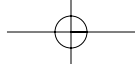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충성을 드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자기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누구나 다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행실을 나타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주장하려 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반항하여 자신들은 들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이 조롱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고 단언해 놓고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시면 싫어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멀리 떠나시어, 마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분리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점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외식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 나는 기꺼이 저분이 내 임금임을 인정한다. 나는 그분에게 넘치는 충성과 복종심을 드릴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 집에 들어와서 어느 것도 요구해서는 안 되고, 나를 조금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은 사실 그러한 악을 자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 그런 식으로 야단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것에 전혀 손대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자.”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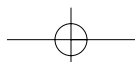
하나님의 도로 찾을 권리를 짓밟고 원망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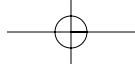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을 얼마나 뻔뻔하게 모독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여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원하실 때에는 그것을 도로 찾아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더 나아가 옅은 궁극적인 적용을 부연합니다.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읊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어찌나 철저히 복종시켰던지 하나님의 손에서 고통스럽게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 그가 주셨으니 분명히 그것을 다시 취하여 가실 수 있다.” 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주권적인 권능이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의롭고 정당하다고 고백하지 않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고 원망하고, 너무나 냉엄하시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을 도로 찾을 권리를 하나님께 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취하여 가심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좋을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좋다는 관점, 바로 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이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할 때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무엇을 뜻하는지 세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어떤 감상에서 나왔는지도 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위선이 없고 진실뿐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장 먼저 고백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잔인하고 너무 몰인정하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시오,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 배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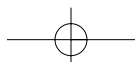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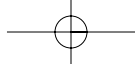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는 공홀과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를 갈며, 독약을 머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부성애적 선을 깊이 인정해야 찬미드릴 수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성품상 의롭고 편벽되지 않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음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심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 주는 것입니다.(욥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한다면 그러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케 될 것입니다. 본문의 결론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을 부연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옮긴다면 이렇습니다. 욥은 쓸데없이 하나님을 욕하는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는데, 이 자세는 매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소원과 전혀 상반되는 것들을 보내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때 까닭이 있으며, 정당한 이유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것처럼 안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훌륭한 이유를 가진다.”는 것을 명심해 두었다면, 하나님은 일들을 정당하게 관장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노를 발하는 것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께 까닭없는 일을 하신다고 말한 적이 한번도 없음을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당치 못하거나 공평치 못한 일을 한 가지라도 하신다고 생각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한 마디 말씀에 그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또는 ‘하나님께’ 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들을 말할 때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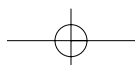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들은 마음속에 깊은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대번에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따집니다. 물론 그러한 외면적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의향이 숨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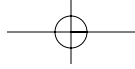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폭군으로 몰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어떠한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어째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통 이유를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한동안 우리 속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들을 들으며 격노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폭군이거나 모든 것을 뒤죽박죽해 놓기만 하는 난폭자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무서운 발언이 사람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찬미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확신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하거나 무심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생각없이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놀랄만한 공의와 선하심과 무한한 지혜로 행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온전히 정직함과 공평만이 있게 하심을 인정합니다. 여기에 유추할 만한 한 가지 조목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적들을 통해서 욕에게 속한 것들을 빼앗아 가신 것을 어떻게 인정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기로 합시다. 다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까닭없이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음을 말씀드리는 것만으로 족하게 여기겠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받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될 때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심을 확신할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환난을 잘 참아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선하심을 직접 맛본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을 통하여,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리를 숙여야겠습니다.

